

## 37 식물원관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저세포암

성별	여성	나이	47세	직종	식물원 관리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2년 부터 2013년 까지 □사업장에서 식물원 관리 및 채소, 화훼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, 2013년 12월 좌측 코 옆에 점이 생겨 시행한 조직검사상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2년부터 □사업장에서 채소, 과일, 화훼, 관상용 식물 등을 관리하며 모종심기, 재배, 수확,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며, 업무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밀폐 공간과 야외의 개방 공간에서 수행되었다. 특히 밀폐공간은 직사광선 투과율이 높아 자외선 및 고온에 노출되었다. 비닐하우스의 비닐재질은 폴리에틸렌, 유리온실의 유리는 자외선 투과율이 89~93% 였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### 4 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(유해광선)

### 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0년경부터 좌측 눈 아래, 코 옆에 1~2mm 정도의 까만 점이 생겼고, 2013년 12월 성형외과 내원하여 점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광범위 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받았다.

근로자 ○○○은 2002년부터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 3개월간 식물원관리 및 채소, 화훼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근로자의 상병인 기저세포암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발암요인으로는 태양광이 잘 알려져 있다. 근로자는 온실 및 야외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태양광에 노출되었으나, 노출기간이 국제적으로 제시된 최소 노출기간인 20년을 만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. 끝.